

집중호우로 인한 해양쓰레기 수거현장 점검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군산항을 방문하여 해양쓰레기 수거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 격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7월 17일(수) 군산항 1부두를 찾아 집중호우로 인한 쓰레기 해양유입 현장과 유입된 쓰레기의 수거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최근 충청권 집중호우로 하천을 통해 다량의 쓰레기가 군산항과 인근 해역으로 유입되어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공단,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어제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에서 도로 침수 등 피해가 발생했다.”라며, “해양의 경우도 집중호우 시 강 상류의 쓰레기가 항만과 인근 해역으로 일시에 유입될 경우, 선박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양으로 유입된 쓰레기가 인근 해역으로 퍼지기 전에 신속히 대응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해양환경정책관 해양보전과	책임자	과 장	이성희 (044-200-5300)
		담당자	사무관	서민재 (044-200-5301)